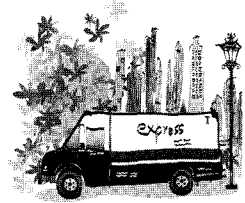


봄철 이사 시기, 꼭 체크해야 할 가스시설 안전관리 요령

보통 이사를 할 때면 이삿짐 싸기, 각종 관리비, 공과금 납부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가정 먼저 챙겨야 할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정작 잊어버리기 쉽다. 이사가 많아지는 따뜻한 봄철 가족과 가스안전 모두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가스안전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5년간(2003년~2007년) 발생한 가스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월, 그리고 11월에 사고발생 빈도가 특히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사시 발생하는 가스사고의 90% 이상이 LP가스 시설의 사고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따뜻한 봄을 맞아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시설 철거 후 막음 미조치에 의한 가스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사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퇴거자들은 가스렌지 등 가스시설 철거를 도시가스사나 가까운 LP 가스 판매점에 의뢰하여야 한다. 철거 후에는 반드시 가스배관에 대한 막음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직접 철거한다거나 막음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주자도 새로 이사 온 집의 가스배관에 막음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가스렌지를 연결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또한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기존 가스판매점과 LP가스안전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후 새로운 가스판매점과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만일 LP가스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사고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가입한 소비자피해보상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알아 두면 유용한 이사철 가스안전 지식

막음조치란?

가스렌지 등 연소기를 철거한 후에 배관이나 중간 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LP가스 판매점, 도시가스지역관리소, 가스시공자 등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막음조치 미비사례



호스 철거 후 막음 미조치 연소기 철거 후 밸브 막음 미조치 연소기 철거 후 호스 상태 방치 막음조치 안된 시설에서 화재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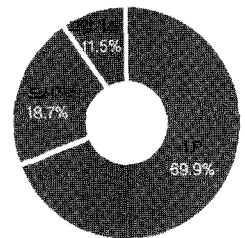
이사시 “꼭” 지켜야 할 사항

- 연소기(가스렌지·난로·운수기·보일러 등)를 설치 또는 철거시, LP가스 판매점이나 도시가스지역관리소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던 가스를 변경(LP가스 → 도시가스)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노출교체 등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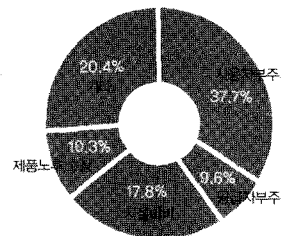
기타 가스안전관리 방법

- 차량 내부에 이동식 난방기를 적재하고 사용하다가 질식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가스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가스시설(용기·배관 및 호수 등)은 철거하여야 안전합니다.

2008년도 가스사고



LP 사고원인



솔로몬의 지혜

출처: 월간《행복한동행》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무면허 운전 죄

Q 며칠 전 운전을 하다가 검문이 있어 면허증을 주었더니 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적성검사를 깜빡 잊고 못 받았는데 그 사이에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무면허 운전입니까?

A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에 대신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가 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보통 무면허 운전 경력도 없고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수사당국이 오히려 무면허 상태인 점을 알고도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운전자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서 운전을 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가?

Q ‘커피 프린세스’ 라는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최한결입니다.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커피 전문점이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니 꼭 소리 나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 접한 경영 문제가 수습 기간 3개월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부 규정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는데 직원들이 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 기간도 퇴직금의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1961년부터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정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평균임금, 지급률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계속근로년수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장에서 지급하던 하루 동안의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 당 30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한결 사장의 질문은 퇴직금 제도 중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것인데, 법원은 수습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 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가 달라졌어도 수습 사원으로서의 근무 기간과 정규 사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산의 원칙은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통산을 배제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제도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여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참에 수습 기간 3개월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시키는 내부 규정의 개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 또 한 가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5명 미만은 영세사업장으로 보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커피 프린세스의 변장을 기원합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

출처: 《좋은생각》

비닐포대 타고 무슨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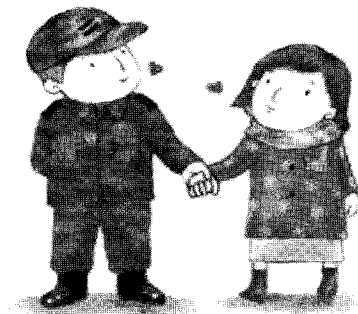


자 대배치를 받고 들어간 소대는 일병 두 명, 이등병 두 명, 상병 한 명을 빼고는 죄다 병장이었죠. 그 덕분에 서열이 빨리 풀렸지만요. 하루걸러 내리는 눈을 치우느라 지쳐 있던 어느 겨울날이었습시다. 병장님이 이등병인 나와 일병인 고참에게 나무를 해 오라고 시켰습시다. 촌에 살던 나와 서울에 살던 일병이 해 온 나무는 보기에라도 확 티가 날 정도로 질과 양 모두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 러자 병장님은 나무를 구하러 갈 때마다 나를 데리고 갔습시다. 하루는 어디서 비닐포대를 주워 온 병장님이 나보고 자기 뒤에 타라는 겁니다. 고참이 타라니 안 탈 수도 없었지요. 몸을 뒤로 쪽 찿히고 엉덩이만 의지한 채 신나게 달렸습시다. 짜질 듯한 기분을 뒤로하고 갑자기 앞에 있던 고참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순간 내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시다.

한 뺨 정도의 나무 밀동 위를 두 엉덩이가 올라간 거예요. 아픈 곳은 분명 엉덩이인데 숨도 못 쉴 정도로 얼굴은 벌개졌고, 그날 부대는 난리가 났답니다. 둘 다 뼈가 부러졌다네요. 들리세요? 그날의 함성이!

고무신이라는 이름



일 병인 남자친구를 둔 고무신입니다. 사실, 고무신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어요. 남자친구를 군에 보내 놓으면 2년은 쉽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국방부 시계는 반대로 간다더니 왜 이리 시간이 더디 가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늘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옆에 없으니 많이 외로웠지요.

그 래서 한 번 고무신을 벗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지요. 나는 행복할 줄 알았고, 남자친구도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우린 둘 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펐습시다. 그런 나를 정기휴가 나온 남자친구가 잡아 주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사귀자고 말해 준 남자친구가 무척 고마웠지요.

그 런데 부대로 복귀한 남자친구가 변했습니다. 전화해도 냉랭하게 받고, 연락도 잘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싸우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다시 버려질까 봐 걱정이 많았답니다. 남자친구의 진심을 알게 된 뒤 나도 잘한 것이 없기에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는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으려고요.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